◈교회목표◈
신령한 예배
천국일꾼 양성
민족복음화
세계선교
지역사회 봉사

주간 충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시편 18:1)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잠언 16:3)

발행처 : 대한예수교장로회 충현교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 552-8200 THE WEEKLY CHOONG - HYUN 편집인 : 우기전 편집국장 : 이종국

1996년도
11월 정기당회에서 당회 인사 확정
11월 15일(수), 신임 서리집사 · 권찰 교육 및 면접
12월 10일 제직 및 교구일꾼, 12월 17일 위원회 봉사자 임명

교회는 11월 1일(수)에 모인 11월 정기당회에서 당회산하 각 위원회 및 기관의 1996년도 인사를 승인, 확정했다. 신임 각 위원장은 11월 19일까지 각 위원회 산하의 일꾼들을 선발, 명단을 기획실에 제출해야 한다.

남여서리집사 및 교회학교 교사, 찬양대와 교구일꾼 등은 12월 정기당회에서 확정하고 12월 10일(주일)에는 제직 및 교구일꾼, 12월 17일(주일)에 위원회 봉사자(교회학교 교사, 찬양대원 등)을 임명하게 된다.

한편 1996년도 신임 서리집사 후보 및 권찰에 대한 교육 및 면접이 11월 15일(수)에 있게 된다.

· 당회
서기 / 우기전 부서기 / 손경수

· 예배위원회
위원장 / 김재명 지도 / 현상민
예배부장 / 김여순 성례부장 / 박인건
안내부장 / 김인관 영어부장 / 이병학
찬양부장 / 손동운

찬양대	대장	지휘	반주	부대장
가브리엘	손동운	박동희	백금옥	박홍규 / 홍명순
임마누엘	차신득	장기범	김윤경	이개인 / 정명실
할렐루야	이종석	김철륜	김옥란	안동현 / 전성자
		악장 / 이수철		
아 멘	하대선	이수철	송영미	조규호 / 김정순
호산나	현계식	송숙자	채은실	양선자
실로암	이 훈	김철륜	임효선	박성명 / 나영실
시 온	김천채	최광덕	조희영	손 철 / 조증선
핸드벨	정경자	송재월		김승옥
크로마하프	구자남	송문영		이정자

· 교육위원회
위원장 / 김영개 지도 / 이종대

교회학교	부장	지도	부지도	부감
영아부	정광호	박도수		최정남 / 서명숙
유아부	조인제	계선화		권명옥 / 이남숙
유치부	강봉수	정연희		이동명 / 오화자
초등1부	박상준	손미희		진홍용 / 김정자
초등2부	임무천	송향자		강철형 / 백영기
초등3부	양종섭	오인숙		김영수 / 최하자
초등4부	이하영	박노철		김환기 / 이정헌
초등5부	이인상	김필수		전홍렬 / 김순실
초등6부	송기홍	한용관		장주석 / 서종남
중등1부	최무길	김희수		이재걸 / 조옥환
중등2부	윤성철	최영찬		박철구 / 이애나
중등3부	김종구	이홍성		한송규 / 최 규
교등부	박영식	한근수		김단용 / 조혜순
대학부	서동석	장봉생	이준경	안석현 / 강순희
청년1부	강모용	김의환	김동석	이형수 / 우순성
청년2부	엄필성	김정우		임기채 / 박명엽
장년1부	강 협	정광욱		황의만 / 이순자
장년2부	최성현	윤영탁		이종섭 / 박효지
장년3부	정운석	정규남		황영일 / 김용순
소망부	마성락	이종대		이만기 / 이명자
새가정부	이병옥	성봉환		박덕양 / 백영희
영어부	이병학	이승림	남상범	이부성 / 장영옥
예신부	송환창	장우천		장철환 / 이정현
사랑부	김춘권	박경한		김중선 / 최미정
애바다부	고병국	이준우		신상수 / 박윤석
탁아부	최윤덕	김정자		이영일 / 민순애

· 전도위원회
위원장 / 강은원 지도 / 장경철
전도부장 / 윤성철 직능부장 / 이인상
농어촌부장 / 김재균 전도대장 / 강은원
위원 / 김경철

· 선교위원회
위원장 / 노광헌 지도 / 장봉생
위원 / 하대선 송환창 조인제 이하영 박상준 강봉수

· 봉사위원회
위원장 / 김은호
구제부장 / 김경철 경조부장 / 박인건
차량부장 / 김영길 미화부장 / 문홍구

· 인사위원회
위원장 / 당회장
위원 / 윤명식 김영개 강순용 김차생 우기전 손동운 노광헌 오진국

· 기획위원회
위원장 / 김차생
위원 / 윤명식 김의철 김은호 김영개 강순용 김차생 우기전 노광헌 오진국 최대원 강은원 김재명 손경수 이종국
출판국장 / 조선근 지도 / 조동원 부지도 / 변춘옥
위원 / 정운석 정정주

· 행정위원회
위원장 / 김의철
기도원 원감 / 김방진 지도 / 윤종일
기도원 총무 / 이태규
위원 / 윤명식 김경철

· 교구위원회
위원장 / 강순용 지도 / 김찬곤

교구	교구장	지도	부지도
1	남선우	성봉환	오인숙 / 윤인숙
2	김의철	이종대	최순복 / 김영숙
3	윤성철	김찬곤	장영자 / 최명자
4	차신득	장우천	배옥인 / 손미희
5	박승준	이홍성	송향자 / 박종화
6	이병옥	장경철	장혜순 / 정복인
7	최대원	현상민	김옥윤 / 최지혜
8	박영식	조동원	박도수 / 박희자
9	김광남	조윤재	정연희 / 김복순
10	엄필성	정광욱	신동자 / 최영란
11	강모용	김희수	계선화 / 임태주
12	김종구	박경한	김정자 / 현정남
13	김영길	한용관	정양순 / 오정숙
14	이병학	이승림	

새가족부장 / 오정헌
지도 / 윤삼중 부지도 / 한영준
부감 / 김구형 염숙현

· 재정위원회
위원장 / 최대원
위원 / 윤명식 조선근 우기전 노광헌 오진국 차신득 안종욱 최명환

· 교육훈련원
원장 / 당회장

	원감	지도	위 원
성경연구원	강 협	조윤재	
유 아 원	문홍구	민경애	
성장연구원	송기홍	김희수	
선교연구원	노광헌	장봉생	
전도훈련원	강은원	장경철	
도서장학회	김방진	박경한	마성락 / 정광호 / 최성현 김재균 / 이종국

· 교육연구소
원장 / 당회장
부소장 / 정하우 지도 / 부지도 / 김필수

· 감사실
실장 / 박승준
위원 / 이 훈 김광남 서동석 이종석 양종섭

· 건설본부
본부장 / 남선우
위원 / 윤명식 정하우 서일영 최무길 이창호 김천채 김인관 임무천

· 제직회
회장 / 당회장
서기 / 이정우 부서기 / 권명옥 황영일 박철구

· 집사회
회장 / 전홍렬 부회장 / 이동명

· 권사회
회장 / 김석윤
서기 / 조혜순 부서기 / 박효지
회계 / 최정희 부회계 / 홍명순

· 교회 상근부서
기획실장 / 오진국 교육국장 / 이종국
사무국장 / 윤명식 비서실장 / 이종국

· 당회장 청빙위원회
위원장 / 우기전 고문 / 윤영탁
위원 / 윤명식 김영개 김차생 노광헌 하대선 강은원

· 노회총대 / 윤명식 김차생 우기전

· 충현교회 유지재단
이사장 / 김창인
이사 / 김은호 정하우 서동석 박승준 마성락
감사 / 엄필성 정광호

· 재단법인 충현동산
이사장 / 김창인
이사 / 윤명식 김방진 강순용 김차생 김경철 우기전 노광헌 오진국 김재명 김여순
감사 / 김의철 하대선
동산부장 / 김여순 상조회장 / 김여순

· 사회복지법인 충현복지재단
이사장 /
상임이사 / 오진국
이사 / 이태규 윤명식 조선근 김영개 우기전 노광헌 손동운 강은원
감사 / 차신득 이하영

충현복지관장 / 이동규
사무장 / 하상준 부장 / 송상천

충현강단

시편 강해

대적할 자 없는 메시야

(시 2:1-12)

본문은 대적할 자 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 대한 기록입니다.

1. 열방의 어리석음이 어떠합니까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2:1)라고 했습니다. 1-3절까지는 땅위에 여러 나라가 너무 어리석은 일을 하는구나 하시는 탄식의 말씀이 나옵니다. 복받을 일이 많고 많은데 복받을 일은 안하고 망할 일만 골라하고 있으니 '어찌하여' 라는 안타까운 탄식의 말씀이 이 장 첫머리에 나옵니다. 특별히 여러 나라가 분노하는데 하나님을 향하여 분노하니 기막힌 일입니다. '허사를 경영하는고', 여기서 '허사' 는 첫째, 뿌리없는 열매를 말합니다. 둘째, 영육이 복을 받을 수 없는 일을 말합니다. 셋째, 자타가 손해 받는 일, 유익이 없는 일을 말합니다. 그러면 그 헛된 일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1) 여호와와 그 기름받은 자를 대적합니다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 기름받은 자를 대적하며"(2:2)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순천자는 존하고 역천자는 망합니다.

(2) 여호와로부터 자유롭자고 합니다

"우리가 그 맨 것을 끊고 그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도다"(2:3)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맨 것을 끊는다' 라는 말은 하나님의 법칙을 깨뜨리자 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아침에 태양이 올라오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인데 개 천 마리가 짖는다고 태양이 올라오는 일에 머뭇거리겠습니까? 인간은 하나님의 법칙을 깨뜨릴 수가 없습니다. '맨 것을 끊자', 자유하자는 말입니다. '주일날을 지켜라, 십일조를 바쳐라' '애고! 우리 자유하자' 공기를 마시는 인생이 하나님의 명령없는 곳에 가서 살 수 있겠습니까? 인간의 자유는 하나님 앞에 책임을 감당하면서 누리는 자유지,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자유한다는 말은 방종이요, 반역입니다.

2. 하나님의 뜻은 성취됩니다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심이여 주께서 저희를 비웃으시리로다 그때에 분을 발하며 진노하사 저희를 놀래어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1:4-6), 인간 구원의 역사를 메시야를 통하여 이루겠다고 선언하시는 말씀입니다. 세상의 세력잡은 자들이 아무리 하나님의 뜻을 꺾어 버리려고 애를 써도 하나님은 그들의 행동을 보고 기가 막혀 웃으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스러워서 웃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거스리다가 하나님의 비웃음거리가 되면 안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만민을 구원하려고 세상에 오실 때에, 갓난아이로 나신 예수님을 헤롯 왕이 죽이려고 덤벼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요셉에게 현몽하셔서 애기와 그 모친 마리아와 함께 애굽으로 피난을 갔습니다. 예수님이 이적과 기사와 교훈을 주시며 하늘나라 복음을 증거해주실 때에 바리새교인, 헤롯당, 사두개교인이 연합진영을 만들어 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박아 죽이고 돌로 판 무덤에 넣고 큰 돌을 갖다가 문을 봉해놓고 도장을 꽉꽉 찍었습니다. 세계를 점령했다고 하는 로마의 군인들이 밤잠을 못자면서 무덤을 지키며 이겼다고 개가를 불렀습니다. 그런데 "♪♪ 사흘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하나님의 약속, 예수님의 말씀하신 그대로 사흘째 되는 새벽에 예수님은 부활하시었습니다. 돌로 막고 인봉했던 무덤 문은 열리어 빈 무덤이 되었고, 오순절날 성령님 임하여 세계 끝까지 교회가 섰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반대할 자는 없습니다.

3. 예수님의 권세가 어떠합니까

(1)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2:7 하),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을 땅위에 메시야로 세우십니다. 예수님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는 양자적으로 하나님의 아들 딸입니다.

(2) 열방의 통치자이십니다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네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2:8),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땅위에 메시야로 보내시고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셨습니다. 열방은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형성됩니다. 에레미야 선지자가 바벨론, 세계에서 가장 아름답고 훌륭하던 바벨론은 땅위에 자취가 없어지리라고 하셨고, 또 저 남방에 있는 애굽은 남아있긴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오늘에 아무리 찾아도 바벨론 나라는 그리 굉장하더니 자취도 없어지고 애굽은 그리 굉장하더니 째째한 나라로 간신히 남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무너뜨리겠습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릴 자가 없습니다. "♪♪ 세상 나라들은 멸망받으나 예수 교회 영영 왕성하리라"

(3) 철장의 권세를 가지신 분입니다

"네가 철장으로 저희를 깨뜨림이여 질그릇 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2:9)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권세는 첫째, 부활의 권능으로 영원한 것입니다. 개인의 생일, 나라의 명절은 나고, 일하고, 죽고 끝납니다. 예수님은 나고, 일하고, 죽고 그 다음에는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신 생명은 영생이십니다. 예수님과 연합한 생명은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영생하나니 예수님이 부활하신 명절은 개인의 명절만이 아니고, 한 나라의 명절만도 아니고, 우주의 명절이고 영원한 천국의 명절입니다. 둘째, 성령님의 권능입니다. 셋째, 재림의 권능입니다.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예수님을 반역하던 자들이 휠장 앞에 질그릇처럼 깨지겠다는 말씀입니다. "♪♪ 오래바란 예수께서 구름타고 오실 때 세상고난 받던 성도 예수따

세계를 점령했다고 하는 로마의 군인들이 밤잠을 못자면서 무덤을 지키며 이겼다고 개가를 불렀습니다. 그런데 "사흘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하나님의 약속, 예수님의 말씀하신 그대로 사흘째 되는 새벽에 예수님은 부활하시었습니다. 돌로 막고 인봉했던 무덤 문은 열리어 빈 무덤이 되었고, 오순절날 성령님 임하여 세계 끝까지 교회가 섰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반대할 자는 없습니다.

중 가지요" 믿음 지키느라고 고생하던 자들은 마중가고 마중 못가는 사람은 "♪♪ 심판받게 심판받게" 천사가 심판 받으라고 그 무시무시한 선언을 내릴 때에 어떡하겠습니까?

4. 인생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1) 지혜를 얻어야 합니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2:10 상)라고 했습니다. '지혜' 라는 말은 분별을 말합니다. 윗사람을 분별하는 것이 지혜고, 먼저 할 것과 나중 할 것 구별하는 것이 지혜고, 그 다음에 섬길 분과 돌볼 분을 분별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입니다.

(2)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세상의 관원들아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2:10 하)라고 했습니다.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육신의 밥을 먹듯 하나님의 말씀도 때를 따라 먹어야 합니다. 육신의 밥은 입으로 먹고, 공기는 코로 먹고, 지식은 눈과 귀로 주로 먹고, 하나님의 말씀은 눈으로 먹고 귀로 먹고 순종함으로 먹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교훈부터 받아야 됩니다. 교훈을 받은 다음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해야 합니다.

(3) 예수님과 화목해야 합니다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2:12 상)고 했습니다. 인생의 몸은 풀이요 영광은 꽃이요 계획은 안개요 생각과 말과 행동은 죄투성이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인생이 무엇인 줄을 아는 사람은 교만과 욕심과 고집을 버리고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입맞추라" 라는 말은 예수님과 하나가 되라는 말입니다. "♪♪ 주와 연합하였사오니 보호하여 주시고" 감사하므로 하나가 되고, 회개하므로 하나가 되고, 순종하므로 하나가 되고, 안내로 충성으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5. 하나되지 못한 자의 결국이 어떠합니까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가에서 망하리니 그 진노가 급하심이라"(2:12 중)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급하십니다. '길에서 망하리니', 여기 '길' 이라는 말은 '세상' 이라는 말입니다. 죽어서 지옥가서 망하는 것만이 아니고 세상에서 벌써 지옥의 괴로움을 당하리라는 말입니다. '길에서 망하리니' 너무 무섭습니다. 세상에서부터 지옥 생활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불꽃 같으신 눈은 인간의 행한 일 잘하고 못한 전부를 살살이 살피신 다음에 회개한 자에게 용서, 감사하는 자에게 더 큰 복을 주시고 끝까지 교만함으로 반역하고 욕심에 눈이 어두워 반역하고 잘못인 줄 알면서도 고집스럽게 반역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다. 그러면 세상 떠나기 전 육신이 땅위에서부터 벌써 지옥불이 가슴에 붙어버립니다.

길에서 망한 실예를 두 가지 말할 수 있습니다. 첫째,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는 지옥가기 전에 세상에서 벌써 지옥에 빠졌습니다. 예수님 팔아 먹고 예수님 사형언도 받으신 다음에 마음에 지옥불이 붙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목을 매어 달았다가 끈이 풀어졌는지 나뭇가지가 꺾어졌는지 떨어져 창자가 다 쏟아져 나와 세상을 떠나니 차라리 나지 않은 것만 못합니다.

둘째,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은 예수님이 의인인 줄 알고도 죽였습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내가 너희 자녀 모으기를 암탉이 병아리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여러번 하려 하되 너희가 원치 아니하니 너희가 빈터만 남겠구나"라고 하신 그 말씀 그대로 주후 칠십 년에 로마의 디도 대장 앞에서 예루살렘의 백 십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이 다 멸망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기회 놓치지 말고 회개하라 하는 말씀으로 이 장이 끝나는데 이 장은 메시야, 하나님의 아들이 땅위에 오셔서 하실 일, 영원한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 것을 예언으로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선을 심고 복을 받으려고 해야지 거짓말하고도 돈만 모으면 복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뿌리없는 열매가 복이 아닙니다. 뿌리가 있어야 됩니다. 너도나도 유익된 일을 해야지, 나도 손해, 남도 손해, 육신도 손해, 영혼도 손해나는 일을 왜 하겠습니까. 헛된 일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한 사람도, 일 전도, 헛된데 빠앗기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 생각이 하나, 말이 하나, 행동이 하나 되면 길에서 망하는게 아니라 길에서부터 천국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하나 되어 세상에서부터 천국생활하기를 소원합니다.

새가족양육부, "참 재미있어요!"

이 명 희
(새가족양육부 13-3반)

주일날, 내가 본당에서 2부 예배를 드린 후 곧바로 달려가는 곳이 있다. 그곳은 예수님을 처음 만나고, 아니면 우리 교회를 처음 찾은 병아리들의 보금자리인 새가족양육부이다. 지난 봄, 사랑과 오래 참음으로써 나를 예수님께로 안내해준 고마우신 분들의 수고로 이제껏 냉담했던 신앙생활에 첫발을 내디디며, 얼마의 갈등 끝에 충현교회의 한 가족이 되기 위해 등록했다. 맨 처음 이곳에 왔을 때는 모든 것이 생소하고 어색했었다. 그렇지만 병아리들을 품어주는 어미닭 같은 담임 선생님의 포근함 때문에 이내 익숙해질 수 있었다.

예배시간에 목사님의 설교는 미리 성경을 읽지 않은 상태여서인지 너무 어려웠지만, 양육부 목사님의 강의는 내 귀를 열리게 해주었다. 특히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나, 우리가 많고 많은 교회 중에서도 충현교회에 다니게 된 것은 그냥 우연이 아니라 창세 이전부터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녀로 택해주신 하나님의 섬세하신 예정과 섭리가 있었다는 말씀을 들었을 때는 너무 감동이 되어서 눈물이 나왔다.

이곳 양육부에서는 행사를 자주 갖곤 했는데 내가 정성껏 동참했던 행사들이 역시 더욱 재미있고 내 기억 속에 인상 깊게 새겨져 있다. 성경쓰기대회에서 나는 비록 정해주신 기간 안에 완필을 하지는 못했지만, 한 글자 한 글자 하나님의 말씀을 써내려가면서 말씀에 대한 이해와 애정이 함께 깊어지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더욱이 짧은 기간이었는데도 신약전권을 다 써오신 분도 있어서 정말 놀라웠고 도전도 받았다. 그리고 찬송가 바로 부르기 대회는 처별로 나누어 진행되었는데, 공부를 마치고 모여서 열심히 연습을 한 우리 4처의 합창은 10-2반 선생님의 그 환상적이었던 지휘와 어우러져 높게만 보였던 1등의 고지를 쟁취(?)하여 푸짐한(?) 상품을 받기도 했다.

또 하나 잊지 못할 행사는 성경암송대회였다. 대회 2주 전에 예제지(요한1서 5장)를 주셔서 읽어 보았더니 너무 길고 어려워서 도저히 외울 수 없을 것 같았다. 그래서 처음엔 포기를 했었는데 항상 '제사보다 순종이 낫다' 는 말씀으로 우리들을 격려해주신 우리 13-3반 담임이신 이경자 선생님의 권유로 외워보기로 마음먹었다.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든지 구하는대로 주신다는 목사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외우기 전에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는 기도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는 정말 놀라운 지혜를 주셨다. 성경말씀은 생각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외워졌고 반복으로 연습한 결과 막힘없이 외울 수 있었다. 그런데 정작에 암송대회날에는 사람들 앞이라 그런지 긴장이 되어서 마음먹은대로 유창하게 외우지를 못했다. '더 잘 할 수 있었는데' 하는 아쉬움에 속상해 하는 나에게 담임 선생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결과보다는 과정을 중요하게 여기신다. 열심히 외운 그 모습만으로도 좋아하실 것이다' 라고 끝까지 다 외운 것을 대견해 하시며 칭찬해주셨다.

이 성경암송대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말씀을 읽는 것과 외우는 것과의 차이점을 알게 해주셨다.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요일 5:3)는 말씀은 내가 평소에 가지고 있던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 하는 궁금증을 풀어주셨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제껏 내가 생각했던 것처럼 그렇게 막연하고 어려운 일만은 아니었다. 그저 내가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며 깨달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실천하는 것이었다.

이렇게 믿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 하는 것들을 조금씩 터득해가면서 새가족양육부는 아주 소중한 나의 한 부분이 되었다. 이제는 서로 낯이 익어 복도에서 만나면 인사할 수 있게 되었고 집회 후엔 국수를 같이 먹기도 한다. 그러나 이제 몇주 후면 나는 양육부를 떠나게 된다. 나를 포함해 거의 같은 시기에 수료식을 하게 되는 우리반은 양육부를 떠나기 싫어서 수료 후에도 와도 되느냐고 묻곤 한다. 담임 선생님께서도 무척 서운하신 모양이다.

새가족양육부의 수료식을 바라보며 특별히 감사하고 싶은 분은 역시 담임 선생님이시다. 우리들을 아기라고 하시며 정말 아기를 다루듯이 등을 토닥여주시고, 거의 주일마다 예쁜 메모지며 캬라멜 같은 작지만 아주 큰 선물들을 손에 쥐어주시던 선생님, 사탄의 심술이었는지 등록하고 얼마 후에 몸이 아파서 한 달 간이나 결석해야 했을 때는 차라리 교회를 집 가까운 곳으로 옮기고 싶은 유혹도 있었지만 그때마다 전화를 해주시며 따뜻한 말씀으로 중도탈락할 뻔했던 나를 이끌어주신 선생님께 감사드리고 싶다.

여름날, 사람들이 졸리워할 때는 '내게 강같은 평화' 를 율동과 함께 가르쳐주시며 매주 열강을 해주시는 목사님, 신생아를 안고 오는 부부의 아기를 항상 받아 안아주시던 우리 반 앞줄의 선생님, 들어올 때 나갈 때 밝은 미소로 인사해주시며 강의도중 어린아이가 시끄러운 소리로 방해할 때면 살며시 다가가 주머니에서 사탕을 꺼내주시던 선생님들의 그 자상한 큰 손…… 사회에 비유하면 유치원이라고 해야 할까? 아니면 유아원이라고 해야 할까? 언젠가 모든 것이 설고 어설펐던 내 병아리 시절의 솜털을 벗고 양육부를 떠나게 되어도 나는 결코 이 모든 아름다운 모습들은 잊지 못하고 오래오래 기억하게 될 것이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두모두……!"

11월 17일(금)
'95 충현 찬양의 밤

찬양위원회(위원장 김은호 장로)는 전 교회가 주님을 찬양하는 마음으로 함께 주님을 찬양하며 서로가 하나가 되어 지나온 1년을 돌아보며 주님께 찬양으로 감사하는 시간을 마련하고 또한 각 찬양대는 이를 통해 더욱 향상되고 발전되는 기회를 갖고자 '95 충현 찬양의 밤을 11월 17일(금) 오후 8시에 본당에서 갖기로 했다.

'95 충현 찬양의 밤은 7개 전 찬양대와 핸드벨콰이어, 크로마하프, 만돌린연주대, 오케스트라 및 남성중창단 등 교회 내 찬양관계 단체가 전체 참여하는 명실공회 충현찬양의 밤이 되도록 계획하고 있다.

각 찬양대는 이미 찬양곡 선정을 마치고 지난 여름부터 연습에 들어갔다. 이번 행사는 음악회 형식을 빌어 전문 아나운서가 순서를 진행하게 된다. 규모있고 질서있는 모습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연주자와 청중이 함께 찬양하기도 하고 마지막 곡은 전 찬양대원이 함께 하여 연합으로 헨델의 '메시야' 를 찬양하게 된다.

이번에 참여하게 될 찬양대원은 약 1,100명 규모. 온 성도들의 관심과 성원과 기도를 부탁하며 진정한 '95 충현찬양의 밤이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추수감사절을 맞으며
외국인 근로자를 초청합니다

영어예배부에서는 이번 추수감사절에 국내에 있는 외롭고 형편이 어려운 외국인들을 초청하여 친교, 의료 서비스, 점심 및 선물증정을 통해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주위에 이런 외국인들이 있으면 이번 행사에 초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기회에 옷가지나 기타 생활에 요긴한 물건들을 이들 외국인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니 이런 물건들이 있으신 분들은 11월 12일(주일)까지 영어예배부(복지관 지하 1층 가나홀)로 가져 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일시 : 1995. 11. 19. 09:00~14:00
- 장소 : 복지관 지하 1층
- 연락처 : 이승림 목사(552-8200) , 이정협(570-4418)

We are pleased to announce that we'll be having a Thanksgiving Celebration Party on the 19th of Nov., from 09:00 to 2 pm at the Community Welfare Center, B1. Please kindly help invite internationals in Korea around you.

This will be a special event of sharing with the internationals. Please bring some gift items(clothes, books, etc.) to the chruch that we can share during the party.

이런 일은 고칩시다

예배는 묵도부터 송영까지
예배를 마친 후 퇴장합시다

예배는 우리 교회의 여러 특징 중 하나이다. 교회의 목표중 제일 첫번째 것도 '신령한 예배' 이다. 우리 교회는 예전부터 예배시간을 엄수하고 어떠한 면으로던지 예배시간의 방해가 없도록 애써 왔던 것을 자타가 다 아는 일이다.

더구나 '신령한 예배' 를 교회의 목표의 제일 첫번째로 놓고는 더더욱 "바른 예배, 신령한 예배, 참된 예배"가 되도록 온 교회가 힘을 쏟고 있다. 그래서 예배시간 10분전에 참석하여 예배를 준비하고 마음을 정돈하며 바른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모두가 애쓰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예배' 를 어떻게 이해하느냐이다. 예배는 이미 예배를 위한 준비부터 마칠 때까지가 다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예배준비를 위해 '핸드폰과 호출기' 의 신호음을 끌 것을 부탁한 바 있다(1995년 9월 10일자 <주간 충현> 3면). 예배는 각 순서 순서가 다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그런 의미를 이해하고 예배드릴 때 진정한 의미의 예배가 될 것이다. 따라서 예배란 처음 묵도에서부터 축도 후 폐회송, 사회자의 폐회선언까지인 것이다.

우리가 예배에 있어서 바짝 신경을 써야 할 부분은 바로 이 마지막 부분이다. 설교자의 설교가 끝나고 찬송을 할 때부터 돌아갈 준비가 시작된다. 그래서 가방을 챙기고 성경찬송가의 지퍼를 닫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려오기도 하는 것이다. 더욱이 축도할 때면 서둘러 빠져나가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축도후 송영시간은 아예 예배가 끝난 줄 알고 바삐 나가는 사람들이 꽤 많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마지막 송영은 참으로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다. 모든 순서 순서에서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드리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과 은혜를 받고 예배가 끝나면서 하나님께서 얼굴을 우리에게 향하시고 복을 베푸시는 의미가 있는 것이다.

이처럼 송영 후에 사회자의 폐회선언을 할 때 예배는 마쳐지게 된다. 그때부터 돌아갈 준비를 해도 충분하다. 2~3분 차이가 날 뿐이다. 주일은 우리 모두가 예배당에 모여 주님께 예배하는 날로 알고 나왔을 것이다. 그렇다면 끝까지 모든 순서에 참여하여 온전한 예배가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돌아가는 때에도 서로서로 양보하며 뒤에 앉았던 사람이 먼저 좌석을 빠져 나가도록 양보하고 협조해나갈 때 좀 더 아름다운 예배에로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토·막·소·식

◆ 탁아부는 11월 12일(주일), 3부 예배 후 12시 30분부터 탁아부 예배실(본당 1층 베들레헴홀)에서 '자녀의 건강을 위한 어머니 교실' 이라는 제목으로 유아건강법(1세~7세)에 대한 특강을 한다. 강사는 오현구 집사(대한병원 소아과장)이며 0~7세 어린이를 자녀로 두신 부모님과 0~7세의 어린이를 가르치는 교회학교 교사와 참석을 원하시는 성도들의 많은 참여를 바라고 있다.

11월 7일(화) 장로 기도회

장로 기도회가 11월 7일(화) 오후 8시부터 충현기도원에서 열린다. 교회의 어려운 형편을 놓고 당회원들이 한 마음이 되어 하나님께 간구하는 시간을 갖게된다. 강사는 김창인 원로목사.

지난 10월 31일(화)에는 교역자들이 충현기도원에서 하루종일 보내며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

청년2부 종교개혁 특강

청년2부는 종교개혁 주일을 지내며 합동신학교의 김영재 교수를(교회사 전공) 모시고 특강을 실시한다.

· 제목 : 종교개혁과 칭의 교리
· 장소 : 청년2부실 (교육관 414호)
· 일시 : 오늘, 오후 12시 30분

◆ 초등5부는 11월 12일 총동원 전도주일로 정하고 직접 학생들과 선생님들이 함께 노방전도를 나가며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다.

◆ 대학부는 영어예배부와 함께 이번 추수감사절(11/19)에 외국인 근로자들을 초청하여 함께 나눔의 시간을 갖는다. 옷가지나 생필품(옷, 양말(특히 남자용), 그릇) 등을 11월 12일까지 대학부로 가져와 그들의 고통을 함께 나누기를 바라며 성도들의 관심과 기도를 부탁하고 있다.

◆ 장년3부는 성경퀴즈대회를 11월 12일(주일)에 창세기 전장과 로마서 6~16장을 범위로, 장년3부 전 학생을 대상으로 펼친다.

◆ 사랑부에서는 대형운전면허를 소지한 성도로 사랑부에서 자원봉사할 사람을 찾고 있다. 매주일 사랑부 학생들을 집에서 교회까지, 교회에서 집까지 데려다 주는 일을 하게 된다.

금주에 기도할 제목

1.원로 목사님의 건강과 사역을 지켜 주소서.
· 김창인 목사 : 11/7(화) 장로기도회 인도
11/10(금) 신임교단장 모임 축도
2. 충현의 모든 성도들이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예배시작 10분전에 도착하여 마음을 준비하고 예배드림으로써 은혜 충만하게 하시며, 생활 중에서도 빛과 소금이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게 하소서.
3. 하나님 뜻대로 맡겨진 직분에 겸손히 충성하면서 각 구역과 부서별 공동체가 사랑과 평강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양적으로 질적으로 부흥하게 하시며, 환자들의 영육을 소성케 하시고 자녀들을 붙잡아 주시며 성도들의 사업과 직장을 축복하소서.
4. 하나님이 축복하사 공의와 사랑이 조화된 선진국으로서 선교하는 통일한국이 되게 하시고, 김영삼 장로님과 손명순 권사님에게 믿음과 지혜의 충만함과 육신의 건강을 더하여 주시며, 세계화가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시고, 금년에도 알찬수확을 허락하소서.
5. 제2교육관 공사가 하나님의 은혜 중에 잘 진행되게 하시고,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가족의 건강을 축복하시고, 서만수 선교사의 건강이(신장과 간) 속히 회복되게 하소서.
6. 민족과 나라와 교회를 위한 회개와 기도의 운동이 불붙게 하소서.

선교지에서 온 편지 / 케냐 고은빈 평신도선교사

문맹자 교실을 열고

"메 이시시 예수" (Meisisi Yesu ; 맛사이어로 '할렐루야' 라는 뜻)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인사를 드립니다.

때로는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 잘하고 있는가? 하는 의문과 낙심의 순간이 있지만 그때마다 바울이 말한 '우리가 약할 그때에 강함이라' 는 말씀을 상기하며 하나님이 저에게 지금 맡겨 주신 일들을 감사함으로 감당하고 있습니다.

언어를 배우기 위해, 경험을 쌓기 위해, 도움의 손길이 급한 곳을 돕기 위해 시 등 이곳저곳에서의 떠돌이같던 생활을 마치고 맛사이 땅의 작은 마을 레레(Lele)에 정착한지 6개월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7, 8월의 혹독한 추위(?)가 지나고 이제 온 땅이 누렇게 변한 건기로 접어들었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유영국 목사님 가정과 한 팀이 되어 함께 사역을 하고 있으며 레레에서 되어지는 사역은 크게 교회사역과 학교사역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두 사역이 모두 중요한 사역으로서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맡겨주신 작은 일이 있습니다. 이 사역을 통해 제가 맛사이 사람들을 섬길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1. 레레 기독교학교 (Lele Christian School)

이 학교는 기독교 교육을 통해 아이들이 변화되고 이들이 자라 맛사이가 변화되기를 기대하며 저희 선교사 모두가 관심과 기대를 갖고 기도하는 학교입니다. 저희가 오기 전에 계셨던 선교사님이 마을사람들이 기부한 땅 10에이커에 세운 이 학교는 아직 부대시설이 잘 갖춰지지 못했지만 교실 4개가 있는 시멘트 건물입니다. 비록 창문도 없고 의자, 책상 등이 부족한 교실에서 유치원과 국민학교 1, 2, 3학년 모두 94명의 아이들이 큰 눈망울을 굴리며 열심으로 공부합니다. 부족한 교재, 교구, 의자를 책상삼아 공부하는 아이, 1시간 이상을 걸어서 학교를 오는 아이들 이 모든 안타까운 순간을 지날 때마다 이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복음을 가르치는 것만이 이들에게 가장 큰 도움임을 되새깁니다.

이제 내년(1996)에는 한 학년이 늘고 학생수가 많아집니다. 이로인해 교실을 늘리고 신실한 선생님을 찾는 등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주위에 아무것도 없이 마른 풀과 나무만이 있는 척박한 땅 맛사이에 이 학교를 세우신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아직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이 학교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과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 무할리무, 나누 (Mwalimu, Nanu!; 선생님, 저요!)

단어와 짧은 맛사이어 문장을 가지고 저는 특별히 유치원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의사소통이 완벽하지 않아 답답한 때도 있었지만 자기들 말을 하는 하얀 선생님을 무척 좋아하고 따랐습니다.(때로는 자기들 말을 저에게 가르쳐 줍니다.) 간혹, 아이들에게 질문을 하면 25명의 아이들이 일제히 손을 들고 '무할리무 나누, 나누!' 합니다. 한 아이를 지적해서 시켜보면 답을 모릅니다. 단지 앞에 나와서 분필을 잡아보고 싶고, 선이라도 한 줄 긋고 싶어서 무조건 손을 듭니다. 간단한 덧셈이라도 시키면 두 손이 모자라 발가락까지 세는 귀여운 모습을 볼 때도 있습니다. 종이에 숫자인지 알파벳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뭔가를 써서 보여줍니다. 저에게서 '잘했다' 라는 소리를 듣고 싶기 때문입니다. 한 번도 자신의 모습을 못봤기 때문에 거울을 보면 도망가는 아이들, 예쁜 색깔의 버려진 종이를 주머니에 곱게 간직하는 아이들, 우리에게는 흔한 그림이 아이들에게는 입을 벌리고 감탄사를 연발하는 물건입니다. 이렇듯 순진한 아이들 마음에 그리스도가 깊이 뿌리 내릴 수 있도록 강하게 기도해 주십시오.

3. 성경 읽게 되는 날을 기대하며…

6월부터 문맹자 교실(Literacy Class)를 시작했습니다. 지난 3월 이 일을 위해 1주일동안 세미나에 참석했었고 그때 배운 방법을 가지고 수업을 진행합니다. 맛사이어가 완벽하지 않은 저에게 이 일은 큰 모험이었으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사역의 목적은 글을 읽을 줄 모르는 사람에게 글을 가르치고 결국에는 성경을 읽게 만드는 일입니다. 매 수업마다 성경을 한 구절씩 읽어주고 때로는 간단한 설교도 하는데 이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전도하는 목적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처음 이 교실이 시작되었을 때 8명의 아줌마(Mama)들이 왔었는데, '남편이 못가게 한다' , '집안일이 많다' 하는 등의 이유로 한 두명씩 빠지더니 이제는 4명의 사람이 남았습니다.(맛사이는 철저히 여자가 남편의 말을 따라야 합니다. 남편이 아내를 때리는 것은 아무런 흠이 되지 않기 때문에 말을 듣지 않을 때 충분히 때릴 수 있고, 모든 집안일- 집짓기, 가축 돌보기, 물긷기 등을 여자가 다 해야 함) 숫자가 줄어들 때마다 조금씩 실망했으나 그때마다 이들을 향한 뜨거운 마음을 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 더 기도하게 됩니다. 아이린(Irene), 노르케데미(Norkedemi), 난유(Naanyu), 케네디(Kenedy) 이렇게 3명의 아줌마들과 1명의 남자입니다. 이들은 결석도 하지 않고 열심으로 배우는 성실한 자들입니다. 아이린은 믿음이 좋은 아줌마이고 나머지 세 사람은 아직 믿음이 연약한 자들로서 믿음위에 강하게 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많은 어려움이 이들로 하여금 배우지 못하게 방해치 않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아이들과 아줌마들을 가르치는 것이 맛사이를 위하여 하나님이 현재 저에게 맡겨주신 일입니다. 이 모든 일을 통해 하나님의 도우심과 진행하심이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순조로울 수 없음을 깨달으며 하나님의 완전하심과 위엄 앞에 무릎 꿇고 낮아질 수 밖에 없습니다. 또한 저에게 기도해주시는 많은 분들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정말 기도가 아니면 아무 일도 이뤄질 수 없고 제가 힘을 얻을 수 없습니다. 저를 위해 끊임없는 기도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 기도제목 ▶

1. 문맹자 교실을 위하여
2. 학교를 위하여
- 재정, 신실한 선생님, 모든 교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아이들을 가르치도록
3. 마을 사람들과 교제하며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4. 영적으로 더 강건하여지고 하나님의 지혜를 얻도록
5. 맛사이어를 잘 배울 수 있도록
6. 필요한 재정이 채워질 수 있도록

맛사이랜드의 작은 마을 레레에서
고 은 빈 드림